

## 제주잠녀문화 세계화 작업 본격화

도 전승·보존위원회 이어 워킹그룹 구성...의회·학계·행정·현장 전문가 등  
옵서버 활용 등 탄력적 운영 통해 정체성 확립·정형화 작업 등 추진키로

등록 : 2011년 07월 05일 (화) 19:21:54  
최종수정 : 2011년 07월 05일 (화) 19:21:54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mailto:popmee@hanmail.net)

제주잠녀·잠녀문화 세계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이하 해녀 조례)'에 따라 전승·보존 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 효율성,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제주 잠녀 문화 세계화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

도는 앞서 잠녀 문화 세계화를 위해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친 제주 잠녀문화 보존·전승 기본 계획을 세웠으며 조직개편을 통해 문화정책과에 관할이던 해녀조례를 해양개발과로 넘기는 등 행정적 기반을 확립했다.

이번 조직된 워킹그룹은 현장감 있는 지원 계획과 현실적인 정책 발굴을 위해 잠녀와 잠수 회장, 어촌계장 등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됐으며 필요에 따라 옵서버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8일 제1차 회의에 이어 올 연말까지 매월 1차례 모임을 갖고 제주잠녀문화 세계화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잠녀문화의 도 및 국가 무형문화재 등록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의견도 조율하게 된다.

이들 워킹그룹에는 해양개발계·문화정책 문화재 관리계·문화예술계·해녀박물관 등 관련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실무 테스크포스팀과 도의회 정책자문위원과 학계 관계자들이 포함 되는 등 실현가능한 정책 발굴과 학술적 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했다.

워킹그룹은 또 전승·보존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수합·전달하는 등 궁극적으로 잠녀 문화를 '제주의 대표적인 여성 정신문화'로 승화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게 된다.

특히 제주잠녀·잠녀문화의 정체성(개념)정립 작업부터 지역내 공감대 확산 등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형식적이 아닌 현장성과 실현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발굴로 잠녀 문화 세계화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라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능과 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옵서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들 작업 외에도 잠녀 학술 연구 지원과 문화 연계 콘텐츠 개발, 관광 상품 개발, 어업 소득 향상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0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가칭 '해녀문화교육센터'도 건립하는 한편 잠녀축제도 규모화하는 등 제주잠녀·잠녀문화를 정형화하는데 주력하게 된다.